

5·18 특조위 전일빌딩 헬기사격 조사 착수

위원 9명 광주 찾아 5·18 묘지 참배로 활동 개시
“발표 명령자도 관련 내용 나오면 추가 조사 건의”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대기 등 ‘5월 의혹’을 규명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권리·이하 특조위)가 13일 5·18 광주항쟁 현장을 찾아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발표 명령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면 추가 조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혀 광주항쟁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조위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에 헌화·잡배한 뒤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등을 둘러봤다. 전일빌딩은 10층 등에서 헬기 기총 소사 탄흔이 발견된 곳으로, 헬기 기총소사는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과 함께 특조단 조사의 2대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지난 11일 출범한 특조위는 첫 광주 방문에 위원 9명 전원이 참석, 강한 진상규명 의지를 내보였다. 이권리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불의를 불의라, 정의는 정의라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을 몰아내고 정의와 진실을 제대로 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어 조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매장이나 집단 발표 명령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규명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국방부나 정부에 (추가조사를) 충분히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전일빌딩을 방문해 헬기 기총 소사 탄흔을 살펴본 후 5·18기록관에서 광주 5월 단체 관계자 등과 항후 활동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석한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본부장 회장은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어 아쉽다”면서 “이번 특조위 활동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가 5·18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특조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37년전 진실 찾기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방문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10층에 남아있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1일 출범한 특조위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5월단체 면담 등을 진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제주 해저터널 물 건너 갔다

제주도 반대 여론 높아...전남도 타당성 용역 중단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좌초됐다.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제주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한 것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의 의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던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달 중 중단됐다.

이 사업은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뚫어 서울과 제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목포~해남 지상 66km, 해남~보길도 교량 28km, 해저터널 73km 등 총 167km의 철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16년간 총 사업비 16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용역에는 전남·제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 서해안 고속철도 수요, 해저터널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난 2010년 한국교통연구원

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0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 3월 중간보고회를 한 뒤 지난달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완료 시점이 임박해 용역이 중지되면서 결과 발표 시점도 미뤄지게 됐다.

용역 중지는 제2공항 건설에 주력하는 제주지역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주지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해저터널에 대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는 최근 제주를 방문해 여론 동향을 살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주의 여론을 고려하면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인구 늘리기 조례 개정
내달부터 전국 첫 지급

장흥군은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내건 장흥군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군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 전 한 명

이라도 장흥군에 거주하면 되고, 이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장흥군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 장려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행사에서 탄생한 커플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귀농·귀촌하는 전입 세대에게는 정남전전망대와 정남전 천문과학관, 물과학관 등 지역 주요 공공시설을 1년간 무료로 개방한다.

‘인구 4만명 지키기’에 나선 장흥군은 7월 인구 4만명선이 무너졌으나 지난달 말 다시 4만명을 회복했다.

/장흥=김용희기자·송부취재본부장

광주지하철 2호선 고무바퀴로 달린다

차륜방식 입찰 ‘우진산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될 차량은 고무바퀴를 달고 달린다.

광주시는 13일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시스템 입찰에서 (주)우진산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유찰 뒤 지난 6일 진행된 이 입찰은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전동차의 바퀴인 차륜(車輪)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우진산전은 고무바퀴를 공급하게 된다.

조달청은 참여업체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우진산전이 주요 항목에서 경쟁업체를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행계획·실적·기술인력 보유상태·경영상태·신인도·지원기술·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량·정성·가격평가를 합산해 결정했다.

광주시는 차량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업체간 경쟁을 통해 차륜방식을 결정함으로써 554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위 업체의 투찰금액이 예산 대비 59%인 792억원”이라

며 “차액 만큼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업체는 발주처 요구에 맞춰 2019년 6월까지 차량 제작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납품한다.

차량방식이 결정된 만큼 이미 착수할 시설계 용역에 이어 토목·궤도·건축·전기·신호·통신 등 설계 작업이 본격화하는 등 2호선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량과 신호 분리발주 방침에 따라 차량과 검수시설을 뺀 신호 등의 분야도 다음달 안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토목과 궤도 공사 실시설계는 최근 착수한 상태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3단계로 나눠 시공된다. 전체 구간 중 4.2km는 지상 노면으로 건설되고 지하 구간 중 28.2km는 4.3m 깊이, 9.5km는 1~1.5m 깊이로 각각 건설된다. 2조579억원의 예산 1단계 구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 2023년, 2단계(광주역~첨단~수완~시청)는 2024년,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추석선물 세트 실속형 대세 ▶14면

그림편지·독일 라이프치히 ▶16면

공립미술관의 길을 묻다 ▶18면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배려교통문화

마법처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운전하거나 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안하기

걸을 때는
무단횡단 안하기

주정차 할 때는
정해진 곳에 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APP 안드로이드 아이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